

2017 여름휴가 여행비용 조사

- ▶ '17년 12월 14일(목) 배포
- ▶ 자료 총 3매

기 관	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
책 임	김형곤 소장/Ph.D/대학원 교수
문 의	김민화 책임연구원/Ph.D
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연 락 처	02) 6004-7643

<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· 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>

여름휴가비 지출, 해외여행으로 5조 2천억 더 썼다.

- 해외여행 비용 1인 평균 158만 원으로 국내 22만 원의 7배 들어
- 국내 3조 4천억, 해외 8조 6천억으로 2.5배 지출
- 해외여행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근거 없는 인식이 문제

2017년 여름휴가 기간 중 국내여행에 쓴 비용은 3조 4천억 원, 해외여행은 8조 6천억 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2.5배에 달했다. 여행률은 국내 38%, 해외 13%로 국내여행이 3배 수준이었으나, 1인당 평균 여행비용이 국내 22.4만 원, 해외 157.8만 원으로 해외가 7배 들었기 때문이다.

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‘2017 여름휴가 여행조사’(자료수집: 방법; 온라인/모바일, 기간; 2017년 9월 04~17일, 표본규모; 26,152명)에서 지난 여름휴가 시즌(6~8월) 국내 또는 해외로 1박 이상의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왔는지 물었다. 이를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여름휴가 여행객의 이동실태와 여행비 지출실태를 분석했다<표1>.

<표1> 2017년 여름휴가 기간(6~8월) 여행

구분	여름휴가 기간 국내여행	여름휴가 기간 해외여행
여행 경험률	38%	13%
평균 여행기간(1인 당)	2.9일	6.7일
총 여행기간	4,406만 일	3,619만 일
평균 지출 비용(1인 당)	22.4만원	157.8만원
총 지출 비용	3조 4천억 원	8조 6천억 원

Q. 여름휴가 여행 기간은 몇박 며칠이었나요?

Q. 여름휴가 여행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?

- 국내: 숙박, 교통, 쇼핑, 식음료 등을 위해 지출하신 총 비용을 적어주십시오.

- 해외: 출발 전이나 여행지(항공, 숙박, 여행상품, 식음료, 쇼핑 등)에서 지출한 것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적어주십시오.

▲여름휴가 추정 여행률; 표본 내에서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비율은 24%(6천 387명)였으나, 해외여행 출국자 수를 근거로 추정한 해외여행률은 13%였으며, 이를 토대로 추정한 국내여행률은 38%였다. 국내여행은 작년 보다 큰 폭(8.4%p)으로 감소한 반면 해외는 1.7%p 상승하였다.

▲여름휴가 여행기간; 국내여행의 평균 여행기간은 2.9일이었으며, 해외여행은 평균 6.7일이었다. 국내는 작년과 동일했으나, 해외는 0.6일 증가했다.

▲추정 총 여행기간; 본 조사의 표본 1명은 20세 이상의 성인 849명을 대표한다. 각 표본의 평균 여행 기간에 이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 ‘추정 총 여행기간’이며, 국내여행은 총 4천 406만 일이었다. 즉, 지난 여름휴가 시즌에 전국민(20세 이상)이 국내여행을 다녀온 총 기간을 의미한다. 반면 해외여행은 총 3천 619만 일로 추정되었으며, 이는 국내여행의 82%에 해당된다.

▲여름휴가 비용; 1인당 평균 국내 여행경비는 22만 4천 원, 해외여행은 7.0배인 157만 8천 원을 지출했다. 기간을 고려하면 1일당 경비는 국내여행 7만 7천 원, 해외여행 23만 6천 원으로 해외여행시 3배의 경비가 필요했다.

▲추정 총 지출액; 추정 총 여행기간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한 값이 ‘추정 총 지출액’이며, 국내여행을 위해 지출한 총액은 3조 4천 47억 원, 해외여행은 국내 총액의 2.5배인 8조 6천억 원이었다. 국내 지출은 작년(4조 826억 원) 보다 17% 감소했고, 해외는 작년(6조 9천 180억 원) 보다 24% 증가했다. 폭염과 긴 장마 같은 기후요인으로 여름휴가 기간 국내여행이 감소한 것에 더해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.

국내여행의 감소,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 악화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([국내 여름휴가 여행 지출, 10% 이상 감소할 것](#))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(7~9월) 국내 거주자의 해외소비지출이 8조57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.4% 증가한 반면,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소비한 금액은 3조34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.4%가 감소했다.

문제는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‘해외여행이 국내여행보다 적게 든다’는 잘못된 믿음이다([해외여행 비용, 국내여행의 3배 넘어, 제주도 3박 4일 예상경비는 69만 원, 동남아/일본은?](#)). 혹자는 가성비를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국내여행은 비용만한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다. 이의 해결 없이는 국내여행 활성화나 여행수지 개선 모두 불가능하다.

• 연구 및 조사방법

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·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기획하여 지난 6~8월 사이에 다녀온 1박이상의 여름 휴가 여행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조사했다.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(Invitation Based Panel)를 표본틀로 하여 2만 6천 1백 명을 조사했으며,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 · 연령 · 지역을 비례할당했다.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.

“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·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
보도자료는 인터넷(www.consumerinsight.kr/travel)에 수록되어있습니다”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

김민화 연구원(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)/Ph.D

kimmh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43

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/Ph.D

jungks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27

장영은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/B.P.S

jangye@consumerinsight.kr 02)6004-7631